

# 고구려를 세운 주몽

글 | 이한

그림 | 이지영

글 | 이한

그림 | 이지영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먼 옛날, 강의 딸인 유화가  
위수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아들인  
해모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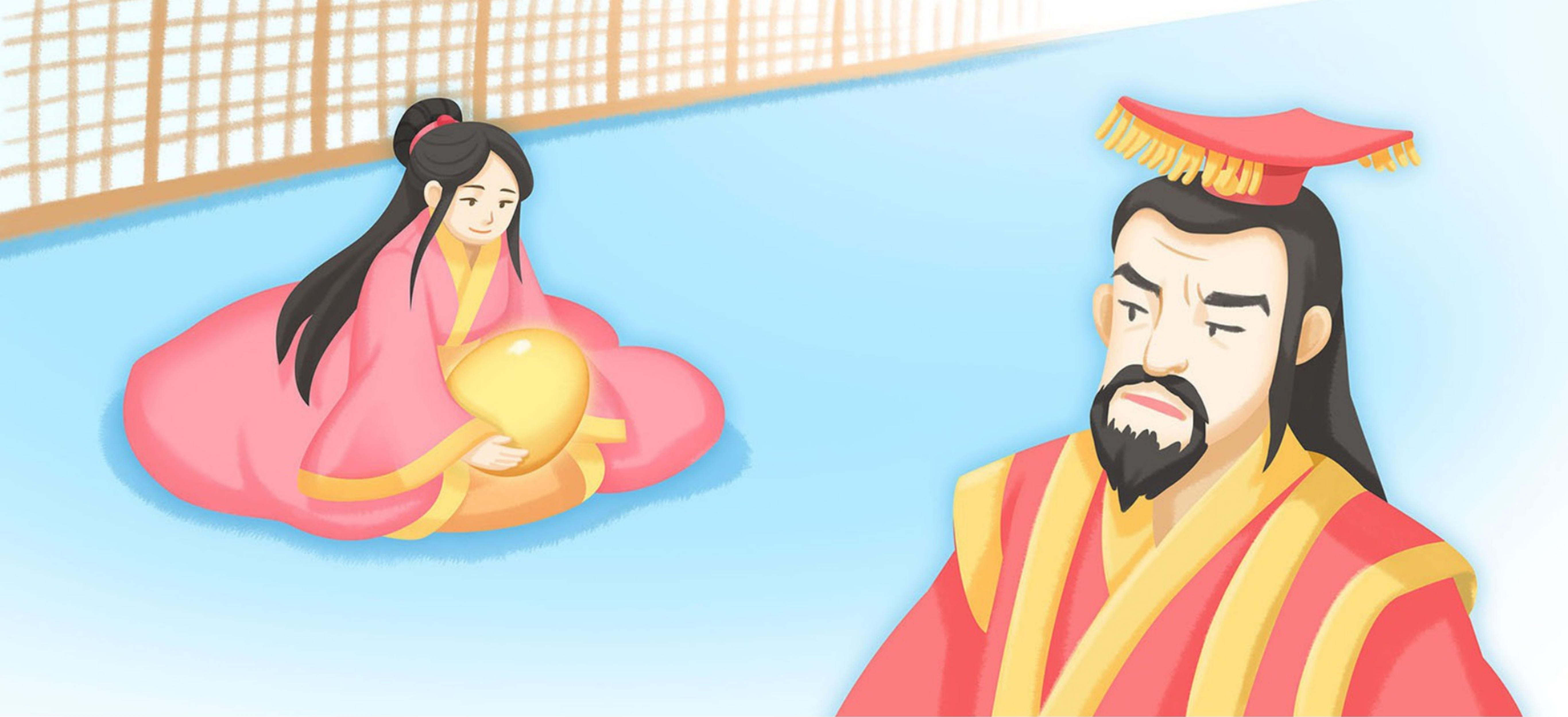
하지만 해모수는 하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혼자 남은  
유화는 부여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줄기 햇빛이 유화를 비추더니, 피해도 피해도 자꾸 따라왔습니다. 유화는 점점 배가 불러 오더니 커다란 알을 낳았습니다.





“사람이 알을 낳다니, 이상하잖아!”  
부여의 왕은 알을 없애려 했습니다.





마굿간에 알을 버렸습니다. 동물들이 피해 다녔습니다.  
들판에 알을 버렸습니다. 새들이 와서 덮어 주었습니다.  
왕이 알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은 유화에게 알을  
돌려주었습니다. 알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활을 무척 잘 쏘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몽은 무엇을 해도 남들보다 잘했습니다. 사냥 때마다 짐승을 가장 많이 잡았습니다. 샘이 난 부여의 왕자들은 주몽을 해치려 했습니다.





“이곳 부여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어!”

주몽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강이 주몽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주몽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물속의 자라와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주몽과 친구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남쪽으로 간 주몽은 졸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주몽은 고구려의 첫 번째 왕 동명성왕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